

ISSUE FOCUS

Issue Focus Special Edition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의 모범 사례들

Best Practices in South Korea for 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Published by ASEM Global Ageing Center (AGAC)

Copyright © ASEM Global Ageing Center, 2022. All rights reserved.

ASEM Global Ageing Center

13F, Seoul Global Center Building, 38 Jong-ro,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82.(0)2.6263.9800

asemgac@asemgac.org

www.asemgac.org

이슈포커스 스페셜호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의 모범 사례들

감사의 글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에서는 2021년에 이어 2022 이슈포커스 스페셜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슈포커스 스페셜호를 위해 많은 분들이 기꺼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슈포커스자문위원단 (하정화, 사비나 헤닝, 이미진, 실비아 페럴 레빈, 마가렛 영 위원)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사례를 제공해주신 창원시청, 아산시청, 홍성군 결성면 행정복지센터, 서울시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인천 송도노인복지관, 서울시 서대문구청, 충주시청,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금천구청, 주식회사 더함에스디, 안산시청, 포천경찰서 덕분에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모범사례”라는 주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이슈포커스 스페셜호가 발간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이슈포커스 스페셜호가 국내외 노인인권 관계자분들에게 영감을 주고 노인의 삶의 질 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
지은희

* 본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AGAC 이슈포커스 자문위원단

AGAC 이슈포커스 자문위원단은 아셈 회원국의 노인인권과 고령화 전문가로 구성되어 이슈포커스가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주요 노인인권 현안을 다루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슈포커스의 주제 선정과 구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문위원단

• 하정화(Junghwa Ha) 위원

하정화 위원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현재 사회복지학과장을 맡고 있으며 고령화와 생애주기, 사별, 임종과 치매 케어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 사비나 헤닝(Sabine Henning) 위원

사비나 헤닝 위원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사회발전부 지속가능인구변화팀 팀장으로서, 고령화와 노인인권과 관련된 아태지역의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이미진(Mijin Lee) 위원

이미진 위원은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노인 학대, 가족 돌봄, 돌봄 노동자, 사회참여 등을 연구하고 있다.

• 실비아 페렐-레빈(Silvia Perel-Levin) 위원

실비아 페렐-레빈 위원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고령화 NGO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녀는 인권, 노화, 건강 분야의 전문가이고, 폭력, 방치, 학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 마가렛 영(Margaret Young) 위원

마가렛 영 위원은 캐나다의 사회적 기업인 에이지 노블(Age Knowble)의 설립자이자 세계노인인권 연합의 운영위원이다. 그녀는 사회 변화와 사회적 선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에 대한 노인의 권리와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목차

들어가는 글	05
1 인공지능을 이용한 교통약자 보호 시스템, 창원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06
2 택시를 활용한 노인 이동권 증진 사례	09
3 행복한 어르신 밥상 사업	14
4 한국 노노(老老)케어의 우수 사례	17
5 지도 제작에 인권의 개념을 입히다, 노인인권지도	21
6 횡단보도 교통약자 보호 아이디어, 장수의자	25
7 제론테크놀로지와 주거복지의 결합, 안산시 노인케어 안심주택	28
8 한국형 세대공존 주거복지, 위스테이(WE STAY)	32
9 한국형 노노케어 공공임대주택, 보린주택	36

들어가는 글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에서는 노인인권 동향 정기간행물인 《이슈포커스》를 2020년부터 출간하고 있다. 《이슈포커스》는 노인인권과 관련된 현안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기획되었다. 2020년에는 2회 발간되었는데 2021년부터는 한국의 노인인권을 증진한 모범 사례를 소개하는 《이슈포커스 스페셜 호》가 추가되어 연 3회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이번 《이슈포커스 스페셜 호》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기획된 간행물로서 노인인권의 증진에 기여한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를 국내외에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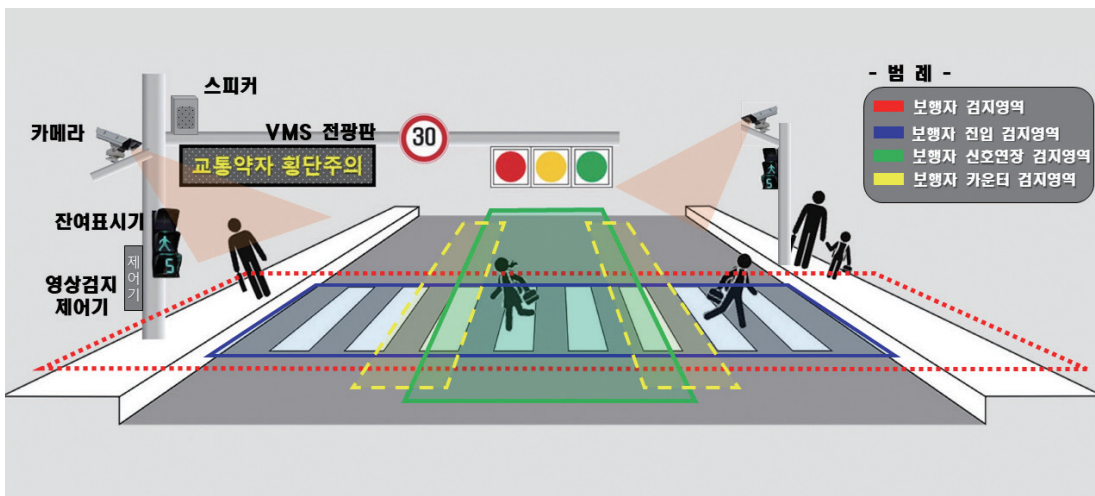
노인인권 증진과 관련된 해외의 우수 사례는 국내에 많이 소개되고 적용되는 반면 국내의 우수 사례를 해외에 알리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에서는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슈포커스 스페셜 호》를 출간하게 되었다. 본 센터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노인인권을 신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2021년 《이슈포커스 스페셜 호》의 연장선상에서 금년에는 한국의 모범 사례 9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이슈포커스 스페셜 호》에 수록된 모범 사례 9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창원의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2) 택시를 활용한 노인 이동권 증진 사례, 3) 인천의 행복한 어르신 밥상 사업, 4) 한국의 노노케어 우수 사례, 5) 제주도의 노인인권지도, 6) 포천의 장수의자, 7) 안산의 노인케어 안심주택, 8) 경기도의 공공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 9) 서울 금천구의 보린주택이다. 이 사례들은 노인인권의 관점에서 사업이 구상되거나 노인인권적 함의를 지니는 대표적인 사례이므로 이번 스페셜 호의 주제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주제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 및 담당자와의 인터뷰 등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노인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금번 《이슈포커스 스페셜 호》를 통해 최근 한국 사회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동권 문제, 주거 문제, 외로움과 고독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1) 좀 더 나은 정책·프로그램·사업 개발에 기여하고, 2) 아셈 회원국의 노인인권 증진 사례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1. 인공지능을 이용한 교통약자 보호 시스템, 창원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만,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이바지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기술의 발전은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인간의 삶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은 기술의 발전을 대표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고 하나의 범주에 국한될 수 없지만 이 글에서는 Alan Turing (2009)에 따라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한다. 한국에서 AI는 데이터마이닝, 음성인식, 컴퓨터,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화되었고 점점 더 많은 AI가 개발되고 발전되고 있다.



※ AI 카메라가 보행자 검지 영역의 주어진 보행신호 시간에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보행자를 인지하여 보행신호 시간을 5~10초 자동 연장해 준다. 또한 보행자 진입 검지 영역에 횡단 대기자나 뒤늦게 진입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AI가 검지하여 진입 금지 안내 방송을 해주며 전광판에도 횡단 중 안내 문자로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한국에서 AI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노인 돌봄과 노인 의료 분야에서는 이미 AI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독거노인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돌봄로봇은 노인의 고립과 외로움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고독사 방지 등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 AI는 개인의 삶의 질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공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창원시는 2021년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교통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서 성능검사를 인증받고, 경찰청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표준규격에 따라 설치되었다. 이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 시간 내에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보행자를 인지하여 5~10초의 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시스템이다. 어린이,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창원시 용호동 의창구의 용호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었다. 현재 창원시에서는 시스템 1개를 설치하여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작동 시험 등을 통해 시스템 작동 유무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사업비: 약 4,100만 원

* 최신형 바닥 신호등 설치 비용: 약 2,000만 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0년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57.5%가 고령자였다. 2018년 46.6%, 2019년 57.1%에 이어 3년 연속 고령자의 비중이 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노인 사망자의 54.8%가 횡단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은 고령자의 보행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성능 시험 사진 (출처: 창원 신교통추진단 제공)

현재 설치한 지 약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효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시스템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뒤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된다면, 기 운영 중인 보행자 우선출발신호(Leading pedestrian interval) 기법과 함께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 보행자 우선출발신호 기법: 신호교차로 내에서 비보호좌회전 및 우회전 차량과 횡단보도 중인 보행자 간의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신호보다 보행신호를 먼저 등화하여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통신호체계이다(김대경, 2019).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현수막 설치 사진 (출처: 창원 신교통추진단 제공)

창원시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은 AI를 통해 노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안전을 돕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노인인권 측면에서 보았을 때, AI는 돌봄과 의료, 자율주행 등 노인 개개인을 돕는 미시적인 분야에서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처럼 지역사회 전체 노인의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거시적 분야까지 확장되고 있다. 노인은 대표적인 교통약자이다. 나이 들에 따른 신체적 노화는 인간이 거치는 필연적 결과이므로 이러한 사회 구성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은 단순히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 AI를 활용한 예시일 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보편적 복지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의 측면에서 본다면 AI의 상용화는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데 필수 요소 중 하나이며 그 중요성은 점차 더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참조

Turing, A. M. (2009).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 *In Parsing the turing test* (pp. 23-65). Springer, Dordrecht.

김대경. (2019).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 교통신호체계 국내 도입을 위한 적정시간 산출방안 연구* (Doctoral dissertation, 아주대학교 교통 ITS 대학원).

2. 택시를 활용한 노인 이동권 증진 사례

고령자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노인인권과 관련된 개념 중 하나는 이동권이다.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 노인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고령 운전자 수가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노인들이 이동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노인이 정부가 정의한 교통약자에 해당된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지칭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노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지하철 65세 이상 노인 대상 무임승차제와 저상버스 도입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자차를 포함해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한 수단은 택시이다. 하지만 다른 교통수단 대비 높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이 쉽게 택시를 선택하지 못한다. 또한 노인 빈곤율이 40%에 이르는 한국에서 노인의 택시 이용은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

택시의 높은 비용 문제를 보완하고, 기동성과 편리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에게 택시 비용을 지원하고, 택시 기사의 수입을 보존하는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한국의 택시 대수는 약 25만 대이며 서울시의 2018년 법인 소속 택시 기사의 월평균 소득은 217만 원이었다. 2020년 통계청의 ‘내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2월 한국 임금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은 320만 원으로, 택시 기사의 수입은 이보다 약 100만 원이 적다. 본고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시 기사의 수입을 보존하는 것과 이용자의 편리성, 특히 노인(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택시를 치매 노인을 보호하는 데 활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1. 아산시 ‘마중택시(100원 택시)’

충청남도 아산시는 2012년 11월 전국 최초로 ‘마중택시(100원 택시)’를 도입했다. 해당 사업의 추진 배경은 1) 최근 고령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일부 버스 노선의 폐지와 배차의 감회로 대중교통 취약지역이 점차 증가한 것과 2)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마중택시’는 전국 농어촌 지역 등 교통 취약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부 지원 택시 사업이다. 거리에 따라 차등적인 비용이 부과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용자는 택시 요금으로 1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주는 서비스이다. 아산시는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존에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던 ‘마중택시’를 법으로 규정하고 정규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중택시’는 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택시를 운행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이용 대상으로 한다. 이용 시간 30분 전에 콜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 3km 이내 버스 정류장까지의 비용은 100원이고, 그 이상 운행할 경우에는 비용이 최대 1,600원이다. 현재 아산시의 도고, 선장, 송악 등 관내 마을 107곳에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운행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고, 마을당 1일 왕복 4~8회씩 운영한다. 아산시 전체 지역의 ‘마중택시’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270명이다.

‘마중택시’는 교통 취약지역에 교통편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 주어 지역주민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운송회사 측에도 운영비 대비 수익률이 떨어지는 노선 설치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어 대중교통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윈윈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아산시의 택시 시스템을 전남 장수, 충북 청주, 경북 포항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했다. 아산시 송악면에서는 버스의 운행 대수를 6대에서 4대로 줄이고 마중택시를 추가 운행하여 예산을 약 15% 절감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마중택시’이용자들은 그동안 마을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시내까지 이동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는데, 이제는 택시를 타고 편하게 정류장까지 갈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택시 기사들은 지역사회 주민을 도움으로써 보람도 느낄 뿐만 아니라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 손님을 태워 수익도 보존할 수 있어서 이 사업에 크게 호응하고 있다.



아산시 '마을택시' (출처: 아산시청)

2. 홍성군 결성면 '독거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1,000원 택시)'

홍성군 결성면 전체 인구 2,057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1,051명으로 약 51%에 이른다. 초고령화와 대중교통의 부재 등으로 인한 이동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성군 결성면은 '독거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작했다.

'독거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데도 교통수단이 없어 병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택시 기사와 봉사자를 팀으로 파견하여 집에서 병원까지 택시로 동행하는 서비스이다. 해당 사업은 이동 지원뿐만 아니라 병원과 약국에서의 접수·수납도 돕는다. 모든 이용자는 서비스를 월 2회, 연 24회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1회당 1,000원(콜비)이고 택시 이용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홍성군에 따르면 2021년 10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해당 사업은 2022년 들어 더욱 확장되었다. 2021년에는 39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2022년에는 90여 명(2021년 대상자 39명, 취약지역 독거노인 52명)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 기사는 1회 운행 시 40,000원을, 동행 자원봉사자는 1회당 20,000원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다.

'독거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용한 A 씨는 "정기적인 병원 진료는 아들이 시간을 내서 데리고 다녔다. 그런데 최근 피부과 진료를 여러 차례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아들이 매번 오기가 힘들었는데, 협의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해서 큰 도움이 됐다. 몸이 불편해 혼자 병원에 갈 수 없는 터라 아들이 시간이 없으면 꼼짝없이 집 안에서 병만 키웠을 텐데, 이 서비스가 너무 고맙다."라고 밝혔다.



독거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 (자료: 결성면 행정복지센터)

3. 서울시 성동구 ‘치매안심택시’

서울시 성동구의 ‘치매안심택시’는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의 좋은 사례 중 하나이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1년 전국 65세 이상 추정치매환자수는 약 88만 6천 명이고, 이는 전체 노인의 10.33%에 이른다. 그중 서울의 추정치매환자수는 약 14만 7천 명(전국 대비 약 16.6%)이고 노인의 9.58%로 전국에 비해 낮지만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수이다. 이는 2021년 한국 전체 노인 인구(약 885만 명) 대비 서울 노인 인구(약 160만 명) 비율(약 18.0%)보다는 조금 낮다(통계청, 2021).

한국에서는 서울시를 비롯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환자가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에 머무르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성동구는 금호2, 3가동(2019년), 성수1가 제2동(2020년), 마자동(2022년) 등 지역 내 마을 중 일부를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여 치매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 사업은 도시 내 상점과 교통수단, 기관과 사업체 등이 협력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외부 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상점들은 해당 지역이 치매안심 상점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한다.

치매안심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성동구는 ‘치매안심택시’를 운행하며 치매환자의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치매안심택시’는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로서,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동구를 치매안심마을로 만드는 데 동참한 택시 기사들이 운행한다(성동구 치매안심센터, 2022). 성동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마을 지역 내 5개 택시 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택시 회사에 ‘치매안심택시’스티커 총 500개와 ‘치매안심택시’차량용 방향제 300개를 배포하였다. 이를 택시 내

부에 비치하여 성동구의 치매안심마을과 치매안심센터를 홍보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치매안심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는 성동구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다. 치매환자에게 택시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매일 여러 지역을 다니는 택시의 특수성을 활용하여 거리를 배회하는 치매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매안심센터로 인계하고 길을 잃은 채 택시에 탑승한 치매 노인을 구조한다. 치매 노인을 위한 택시 서비스는 서울 성동구의 ‘치매안심택시’외에도 경증 치매 노인을 태우고 무료로 집에서 치매안심센터까지 왕복하는 전북 순창군의 ‘안심택시’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치매안심택시’스티커 (출처: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이동권은 모든 인간이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 권리 중 하나이다. 한국의 수도권은 세계적으로도 대중교통이 잘 발달한 지역으로 꼽히며, 이 지역의 노인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동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100원 택시, 1,000원 택시는 최근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용되는 추세이다. 특히 비수도권 농촌 지역의 취약한 교통 시스템을 보완하여 이용자에게 편리성과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택시기사에게 수익을 보장해 주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택시를 이용한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사업은 도심과 농촌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또한 성동구의 치매안심택시 등을 활용한 치매안심마을 조성은 한국 커뮤니티 케어의 대표 사례로서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3. | 행복한 어르신 밥상 사업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은 한국에서 익숙하지 않은 사회적 현상이었다. 1인 개인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식당도 많이 없었고, 사회적 분위기도 혼자 밥을 먹는 행위를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을 줄인 용어인 ‘혼밥’이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쓰이고 있고, 혼자 술을 먹는 ‘혼술’족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국에는 혼밥보다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 많다. 혼밥을 하는 집단 중 독거노인은 다른 집단에 비해 경제적·신체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분석한 여러 연구가 있다(류한소 & 이민아, 2019; 김혜선, 2022; 이수비 & 최윤주, 2021).

통계청에 따르면, 독거노인 비율이 2000년 3.8%에서 2010년 6.1%, 2020년에는 7.9%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 독거 가구는 우울증, 빈곤, 고독사, 자살 등 다양한 노인문제와 결합되어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대상 중 하나이다. 이러한 독거노인의 취약성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동생활가정, 임대아파트 등을 분양하고, 도시락을 배달하며 AI 돌봄로봇을 보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복한 어르신 공동밥상사업’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노인복지법」 제 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와 인천광역시 복지기준선 세부추진과제의 일환으로서 「행복한 어르신 공동밥상 시범 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어르신들의 영양상태를 증진하고, 회차별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 식단(당뇨식, 고혈압식, 저염식)을 공급하여 건강상태를 개선하고자 한다. 둘째, 복지관의 경로식당을 활용하여 공동조리 및 식사 프로그램 추진함으로써 소규모 사회관계 활성화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참여 대상은 복지관 회원 중 독거노인,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노인, 저소득 노인 등 총 60명으로, 전문 요리 강사를 초청하여 맞춤 식단 및 조리 교육 그리고 소규모 공동 조리 및 식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4회차씩 총 6회기가 운영되며 회당 참여 인원은 10명이다. 음식은 노인 맞춤 식단(당뇨식, 고혈압식, 저염식) 위주로 선정하며, 재료 등을 모두 복지관에서 준비한다. 이 사업은 복지관에서 680만원의 예산으로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씩 진행한다.



‘행복한 어르신 공동밥상사업’은 만족도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향후 프로그램 지속 여부의 지침으로 삼을 예정이다. 2022년 7월 13일 첫 번째 세션(6회기)이 완료되어 사업의 첫 번째 만족도 조사가 진행되었다. 만족도 조사지는 참여한 이유, 프로그램 만족도, 참여 후 변화 등 다양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 동기로는 실제로 자기가 요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만족도는 1) 모집 및 선발 과정, 2) 제공받는 강의 및 식단, 3) 강의 장소 및 물품 등 환경, 4) 수강자와의 관계, 5) 전반적 만족도로 구성되었는데, 대부분이 사업에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사업에 참여한 A 노인은 “영양사님께서 매번 전화해 주시고, 동년배와 함께 요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다음 기회에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노인인권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노후에 혼자 지내는 노인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런데 ‘행복한 어르신 공동밥상사업’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송도 노인들의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출처

류한소, & 이민아. (2019). 노인의 '혼밥'과 우울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20(1), 1-27.

김혜선. (2022). 노인의 혼밥과 결식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7(2), 329-336.

이수비, & 최윤주. (2021). '혼밥'행위와 삶의 질과의 관계: 세대 비교. *인문사회* 21, 12(5), 1165-1175.

4. 한국 노노(老老)케어의 우수 사례

노노(老老)케어는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방문하여 청소, 말벗, 세탁, 취사 및 설거지 등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것으로 정의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의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이고 2025년에는 20.3%가 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2060년에는 4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노케어는 노인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새로운 노인형 일자리 사업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2018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노케어는 2015년 8만 345개에서 2017년 7만 3,302개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사업단은 1,219개에서 1,256개로 소폭 증가하였다. 누적 참여자 수는 9만 1,203명에서 9만 2,309명으로 1천 명가량 증가했고, 수혜자 수는 13만 499명에서 14만 55명으로 약 1만 명이 증가하였다. 2020년 기준 노노케어 일자리는 약 7만 9,000개로 전체 노인일자리 사업의 10%가 넘는다. 일본과 미국, 노르웨이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다양한 노노케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서울 서대문구의 ‘장애노인을 통한 노노케어 사업’, 충청북도 크행복지킴이, 한국인력개발원의 ‘시니어소비자지킴이’ 등의 노노케어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1. 서울시 서대문구 ‘장애노인을 통한 노노케어 사업’

서울시 서대문구는 거동 및 대화가 가능한 50세 이상 장애인 15명을 활동가로 선발하여 독거노인 75명을 돌보는 활동인 ‘장애노인을 통한 노노케어 사업’을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동 사업은 서대문구 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대상자의 소득이 안정되게 하고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된 보편적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4대보험 중 고용·산재보험과 민간으로 상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1일 3시간, 월 19일(57시간)을 근무하며 월 80만 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이 사업은 2017년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4년째 장애인 활동가로 참여하고 있는 정 씨(66세, 여)는, 남편과 사별 후 자식들과의 연락도 끊겨 홀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던 91세 독거 어르신에게 “네가 내 딸보다 낫다. 이젠 네가 내 딸이다.”라는 진심 어린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정 씨는 “평소 어르신을 정기적으로 찾아보면서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병원에도 같이 가 드렸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여신 것 같아요. 그동안 장애인 이라고 사회로부터 받기만 했는데 이젠 나도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자랑스럽고 정말 행복해요.”라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장애노인을 통한 노노케어 사업’은 사회적 약자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애인 집단의 고용을 보장한다. 그리고 최근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의 외로움과 고독사를 예방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동 사업은 단순히 독거노인의 외로움 극복이나 고독사 예방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과 일맥상통한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사업 서비스 사진 (출처: 서대문구청)

2. 충주시 클행복지킴이'

충청북도에서는 클행복지킴이'사업을 2014년에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2015년에는 사업명을 클행복지킴이'로 변경하여 전국으로 확대 실시했는데, 충주 역시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클행복지킴이'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당해 마을 내 오랫동안 거주하고 건강·경륜·친화력 및 봉사정신이 높은 노인 840명을 선정해 같은 마을 내 취약노인가구를 방문하여 정서 지원, 안부 확인, 말벗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노노케어 사업이다. 참여자 1인당 서비스 대상자 2~3명과 매칭하여 하루 3시간, 월 30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활동비는 월 27만 원이고 부대 경비는 월 18만 원이며, 총 사업비는 약 28억 원이다. 현재 충주에서 충주시니어클럽과 (사)대한노인회충주시지회 그리고 충주시노인복지관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큰행복지킴이’사업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둘째,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급증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지역사회 내 소규모 매칭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농어촌의 교통 불편과 시간 소모 문제를 해결한 것과, 동네 주민끼리의 매칭을 통해 유대감 형성이 쉽고 노인들에게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긴급 문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소도시의 노인은 대도시의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은 정책도 더 다양하고 수혜자의 범위도 더 넓다. 많은 연구에서 시골이 도시에 비해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큰행복지킴이’사업은 노인이 도시에 비해 많다는 지역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사회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동 사업과 같은 다양한 지역사회 맞춤형 노노케어 사업이 더 다양하게 시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코로나19 확산 중에도 비대면 활동으로, 취약노인가구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출처: 충주시청)

3. 한국소비자원 ‘시니어소비자지킴이’

시니어소비자지킴이 사업은 고령 소비자 피해 예방 상담원을 양성하여 고령자의 이용률이 높은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에 배치하여 소비피해상담, 피해구제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9년 사회서비스형 신규 사업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시니어소비자지킴이 총 34명을 양성하였다. 2020년에는 213명을, 2021년에는 355명을 양성하였고, 2022년에는 5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2021년에는 전국 13개 지역의 시니어소비자지킴이 355명이 고령자 대상 제품 등에 대한 부당 광고 및 위해 제품 1,229건에 대해 시정 조치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소비 규모 및 활동이 증가하며 고령 소비자의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해당 사업은 기획재정부 주관 뉘년 혁신·협업·시민참여

과제 평가'에서 시민참여 부문 우수 과제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은퇴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공익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노인 고용 문제와 노인 정보서비스의 격차로 파생되는 문제의 해결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노인인권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해당 사업은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고 익숙하지 못한 노인 세대의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노인들이 그럴 듯한 광고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노인들은 친환경 제품이나 기능성 제품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소비에 주저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해 과대광고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시니어 소비자지킴이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사업으로 노인들의 현실에 대해 공감대가 가장 큰 동 집단이 상담원이 되어 허위 광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는 단순 돌봄 분야에 국한되어 있던 기존의 노노케어가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니어소비자지킴이 양성 교육 현장 (출처: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

참조

유재언, 배혜원, 임정미, 이윤경, 황남희, & 정경희. (2018).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

5. 지도 제작에 인권의 개념을 입히다, 노인인권지도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등의 국제기구들은 최근 들어 노인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엔의 ‘기후변화에서의 노인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분석연구(Analytical study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older persons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노인인권: 데이터 공백(Report of the Independent Exper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by older persons,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the data gap)’ 등이 있다. 이러한 보고서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노인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노인인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에서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노인인권의 관점을 담은 여러 사업이 시작됐다. 그중의 하나로 제주시에에서 최초로 추진하여 제작한 노인인권지도를 소개한다. 이는 지속적 노인인구 증가라는 인구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노인 당사자, 도의원, 인권운동가가 협력하여 인권의 개념을 담아 제작한 지도이다. 노인인권지도의 제작은 삼도동이 노인인구 비율은 높은 반면, 노인들이 즐기고 갈 만한 곳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삼도1동 노인인권지도



삼도2동 노인인권지도

노인인권지도 제작은 크게 교육, 조사, 지도 제작이라는 3단계로 진행되었다. 교육의 경우, 제주도 삼도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 노인회를 중심으로 지도 제작에 참여할 인권옹호자 그룹(노인 당사자)을 선발하여 노인인권 교육을 실시하였다. 노인인권 교육 내용은 인권의 이해, 노인인권의 이해, 한국 및 제주도 노인의 현황, 마을 현장 조사 방법론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조사의 경우, 인권옹호자 그룹(마을당 6명)에 조사지를 배포하고 노인인권의 관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지도 제작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조사지를 모아 모든 정보를 취합하였다. 모인 정보 중 의미 있는 정보를 선별하되, 공적·공익정보는 추가하고 상업성·광고성 정보와 특정 종교시설 관련 정보는 제외하여 노인인권지도를 제작하였다.

노인인권지도 제작 사업은 도에서 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삼도1동, 삼도2동을 대상으로 제작되었다. 노인인권지도는 제주 지역의 고령화 현황,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노인인권 현황, 삼도동 지역 소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류장, 병원, 복지시설, 교육 및 취미 공간, 은행, 병원, 관광명소 등 다양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순히 현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뿐만 아니라 삼도동으로 새로 전입해 오는 주민과 여행객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노인인권지도는 삼도1동과 삼도2동 동사무소, 복지관 등에 배포 및 비치되어 있어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인인권지도는 삼도1동과 삼도2동이라는 작은 동네로 지역을 한정하여 제작하다 보니, 구성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노인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시설은 광역단위로 설치된 경우가 많아서 작은 마을 내에서는 그러한 정보를 담기 힘들다. 하지만 마을 내 노인인권 관련 정보를 최대한 담기 위해 노력하였고, 광역 단위의 시설은 추가 설명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또한 노인들이 이용하는 유희시설, 음식점 등의 정보는 광고 등의 상업성을 띠므로 담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정보를 노인인권지도에는 표기할 방법을 이번에는 찾지 못했지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에서 올해 제작하는 2차 노인인권지도에는 해당 정보를 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삼도1동 주민센터



삼도2동 주민센터



삼도1동 노인인권지도 비치 현황



삼도2동 노인인권지도 비치 현황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권지도 제작 사업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삼도동에 오래 거주한 노인 당사자, 인권운동가, 도의원이 참여하여 현실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지도에 담았다. 둘째, 한국에서 처음으로 지도 제작에 인권적 관점을 담음으로써 노인인권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노인인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노인인권지도의 제작은 노인의 알 권리와 다양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를 향상하는 데 기여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의 최신 전자기기를 통해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노인들은 키오스크, 전자기기 등의 디지털식보다는 아날로그식을 여전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노인인권지도는 삼도동 내 노인에게 필요하거나 유용한 다양한 시설과 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준다. 스마트폰 교육, 키오스크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노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노인인권을 보장하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노인인권지도 제작과 같은 사업도 노인인권을 보장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 노인인권지도는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제작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장기적인 사업으로 발전될 예정이다.

정민구 제주도 도의원 인터뷰

Q.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제주도 도의원 정민구라고 합니다. 저는 제주도 토박이로서 도의원이 되기 전에는 시민단체에서 20년 이상 활동했습니다. 다양한 기관에서의 시민단체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배우고 느낀 이념을 실체화하고자 도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Q. 노인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A. 도의원에 출마했을 때, 저는 삼도1동과 삼도2동의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 노인종합복지관을 설립하고, 여러 활동가와의 협업을 통해 정치인과 활동가의 시너지를 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노인인권지도를 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삼도1동과 삼도2동은 노인분들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높은데도 상대적으로 노인분들이 갈 만한 곳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해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만들고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느꼈고, 이를 노인인권지도 제작을 통해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Q. 향후 노인(인권)과 관련하여 계획 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A. 개인적으로 저의 어머니께서 오랜 시간 뇌졸중으로 투병하셨는데, 이러한 계기로 존엄사와 호스피스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그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권지도는 단기적인 1회성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올해 새로 제작되는 노인인권지도에는 존엄사, 호스피스 등을 포함하여 더욱 풍성한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다른 지역에도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또한 올해와 내년에 걸쳐 노인인권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권과 관련된 실태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를 제외하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주도 내 노인분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 | 횡단보도 교통약자 보호 아이디어, 장수의자



횡단보도는 세계 각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보행시설이자 도로 노면의 표시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무단횡단 사망자 수는 271명으로 2017년 562명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긴 신호 시간에 사람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여러 아이디어 사업이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중 하나는 몸이 불편하여 횡단보도 신호 대기 시간에 서서 기다리기가 힘든 노인을 위해 횡단보도에 간이 의자를 설치한 아이디어 상품인 ‘장수의자’이다.

유창훈 포천경찰서 경무과장은 2018년 경기 남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과 파출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보행자 사망 사고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노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며 관내 인터뷰를 통해 노인들이 다리가 아파 보행신호를 기다리지 못하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은 무단횡단을 하지 않으면 오래 살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 장수의자의 개발로 이어졌다.

장수의자는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제3회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2017년 남양주에 처음 설치된 이 의자는 현재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장수의자는 접이식 의자로 신호등 기둥에 설치된다. 신호 대기 시간에 노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이 잠시 앉아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신호가 바뀌면 자동으로 접힌다. 장수의자를 설치한 지역에는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고, 무단횡단이 줄고 있다.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큰 예산을 투입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도 중요하지만, 장수의자와 같이 실제 생활 속에서 문제의식을 가진 아이디어 사업은 대규모 인원이나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훌륭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준다. 횡단보도에 천막을 설치하여 여름에 사람들이 더위를 잠시나마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어두운 밤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LED 등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노력 역시 이러한 아이디어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수의자와 같은 생활 속 아이디어를 통해 고안된 제품들은 실질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노인을 보호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단순히 노인들이 신호 대기 시간에 잠시 앉아서 쉰다는 배려의 차원 뿐만 아니라 이들의 무단횡단을 방지하여 실제로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이다. 이는 실제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다.

장수의자는 노인인권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교통약자인 노인의 이동권 증진과 노인 친화 환경의 조성에 도움을 준다. 최근 커뮤니티 케어, 에이징 인 플레이스 등의 개념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녹아들고 있다. 개인이 속한 지역사회 내에서 노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장수의자처럼 현실을 반영한 아이디어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 친화 사업과 함께 큰 예산이 투입되는 노인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까운 미래에 한국의 노인 대부분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장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7. | 제론테크놀로지와 주거복지의 결합, 안산시 노인케어 안심주택

주거는 의식주 가운데 하나로서 인간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에서는 자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삶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폭등한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일반 가정이 많다. 주거비용의 상승은 대한민국 전 세대에게 부담이 되고 있고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에게는 더욱 큰 경제적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신체 활동에 제약이 생긴 노인에게 일반 주택은 턱이 있어 통행이 어렵고 휠체어를 사용하기 힘든 것 등의 애로 사항이 있다. 이러한 노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근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노인 맞춤형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고 있다. 그중에서 2년 전 신축한 안산시의 노인케어 안심주택은 노인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내부 디자인이 적용된 최신형 노인임대주택이다.



안산의 노인케어 안심주택은 안산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맺고 2020년 안산에서 처음 입소를 시작한 노인 맞춤형 주택이다. 노인케어 안심주택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시설)이 아닌 본인이 살던 곳에 살면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현재 안산뿐만 아니라 한국 각지(서울, 광주, 부천, 제주, 부산 등)에서 동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안산은 현재 2곳의 노인케어 안심주택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잔동 9가구, 일동 10가구로 총 19가구가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다. 입주 기간은 10년이고, 임대료는 동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보증금 500만 원에 임대료 25만 원 선이다. 입주 기준은 만 65세 이상 안산시 주민 중 무주택자, 의료기관 퇴원자, 만성질환을 가진 자 등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선발했다.



간이 의자가 설치된 샤워 시설



노인 전용 화장실(자동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 및 천장 히터)



일괄 소등 버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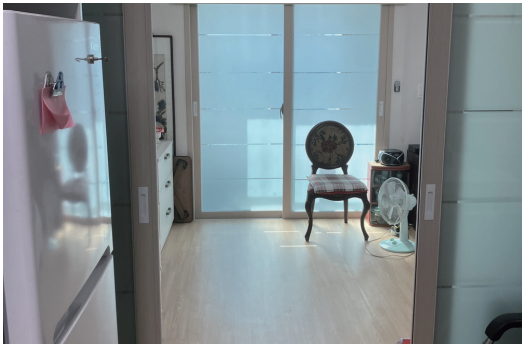
턱이 없는 문



자동 상하 조절이 가능한 베란다 건조대



휠체어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넓게 제작된 현관문



집 전경



안전바(보조손잡이)가 설치된 복도

노인케어 안심주택은 기본적으로 약 10평의 공간에 마루와 방 그리고 베란다로 구성되어 있다. 주택의 모든 공간에는 턱이 없고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는 등 노인들의 이동을 보조하는 디자인으로 설계되었다. 출입문은 휠체어가 들어가기 편하도록 일반적인 다른 문보다 폭이 넓게 제작되었고, 집 내부에도 대부분 노인의 편의를 고려한 디자인이 적용되었다. 불이나 가스 소등을 꺼먹을 수 있는 노인을 위해 입구에 모든 전원을 한 번에 차단할 수 있는 일괄 소등 스위치가 있다. 화장실에는 휠체어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고 세면대는 자동 스위치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며 샤워하는 동안 서 있는 어려움을 돕기 위해 간이 의자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겨울철 보온을 위해 화장실 천장에 히터도 구비되어 있다. 이와 함께 베란다에는 자동으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건조대가 설치되어 있다.

해당 주택은 내부 시설의 혁신성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원, 병원 그리고 교통의 편리성 등 노인 친화적 환경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 또한 1층에 프로그램,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공동 공간을 설치함으로써 거주자가 다양한 사람과 어울리며 지역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했다. 1층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거주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도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노인의 관계를 다각화해 주는 장점이 있다. 거주자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이에 국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비슷한 유형의 노인임대주택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다.

동 주택은 일반 가정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것과 다르고, 일반 요양시설과도 다르다. 일반 가정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을 통해 일정 시간 가사 활동을 도와준다. 노인케어 안심주택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정기적인 주치의 방문, 약사 및 간호사 방문, 차량 지원 동행 서비스 등 더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집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이 일반 요양시설과 다르다. 그리고 노인케어 안심주택 거주자들은 서로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챙기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실제 사례로도 나타났는데, 심장에 문제가 생긴 어르신이 옆집에 도움을 요청해 119 구급대원을 호출함으로 죽음의 위기를 넘긴 경우가 있었다.

안산의 이 사업은 2022년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와 행정안전부의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옥스퍼드대학교와 옥스퍼드브룩스대학교의 교수진이 현장 방문을 할 정도로 우수성을 인정받

고 있다. 안산시 노인케어 안심주택 담당자는 향후 이러한 주택이 안산 내 다른 지역에도 건립될 예정이며, 입주 완료되었음에도 문의 전화가 계속 오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러한 배경은 안산의 노인케어 안심주택이 노인 관련 주거복지 분야의 선도사업으로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증명한다. 노인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한 최신 기술이 설치된 (제론테크놀로지) 유니버설 디자인의 노인임대주택은 향후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주거복지의 다양화를 이끌 수 있는 주요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8. 한국형 세대공존 주거복지, 위스테이(WE STAY)

앞서 소개한 보린주택이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었다면, 이번에 소개할 위스테이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의 임대주택은 총 40만 8,349호이고, 그중 공공임대주택은 12만 7,496호(약 31%), 민간임대주택은 28만 853호(약 69%)이다. 2011년 15만 962호에 비해 약 2.5배 증가한 수치인데, 이러한 증가는 주택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려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커뮤니티시설 기본 컨셉

제시된 콘텐츠는 위스테이 별내의 실제 사례로
지속 입주자들의 참여와 논의에 따라 커뮤니티시설 및
콘텐츠는 변경 가능합니다.



한국의 최신 임대주택 형태 중 하나는 ‘위스테이(WE STAY)’이다. 국토교통부 시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위스테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서 현재 남양주 별내지구와 고양

시 지축지구, 이 두 곳에 있다. 다른 임대주택과의 다른 점은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실현한다는 것과 주택 설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위스테이는 다음 3가지 큰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1) 자주, 자립, 자치적 조합활동을 통한 구성원의 복리 증진 및 상부상조 문화의 확산, 2) 주택협동조합을 통한 안정적 주거권 확보 및 대안적 주거공동체 확산, 3) 조합사업의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공동체 문화 확산의 유도이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위스테이는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권에서 커뮤니티 시설과 프로그램, 협동조합을 통한 아파트 공급 및 운영 등으로 주민이 이웃과 관계 맺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의 아파트 거주 형태에서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체적 가치 복원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동 도서관



공동 주방



대여 가능한 합주실



공동 어린이 놀이터



시니어센터



공동 헬스장



공동 텃밭



공동 운동장

위스테이의 가장 큰 특징은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점이다. 입주자는 단지의 운영에 직접 참여한다. 단순히 임대주택 거주자가 아니라 아파트와 관련된 의사 결정을 공동으로 내림으로써 주인 의식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건축 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설이 무단차 형태로 설계되어 노인, 아이,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그리고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동 도서관, 공동 주방, 공동 어린이 놀이터, 합주실, 헬스장, 카페 등 공동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동커뮤니티 공간도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방지턱이 없고 화장실에는 어린이용 세면대와 장애인용 변기 등을 설치했으며 엘리베이터가 있어 노인이나 장애인이 쉽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위스테이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위스테이 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단지 내에 시니어센터를 만들어 노인들이 자유롭게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인들은 60 플러스 위원회와 60 플러스 행복협동조합을 만들어 단지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22년 7월부터 소식지를 제작하여 단지 내에 배포함으로 시니어분들의 다양한 활동을 홍보하고, 마을 텃밭을 함께 개간하며 단지 주변의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등 위스테이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노인들은 단지 내 재능 기부 활동을 통해 체조 교실에 참여할 수 있고 스마트폰 교육도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강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등 세대 간 공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단지 내 시니어 회원은 위스테이에서 가장 큰 어른들로 위스테이를 이끌어가고 다양한 활동으로 단지의 발전과 복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위스테인 지축지구



위스테인 별내지구

위스테인이 기존 임대주택과는 다른 콘셉트로 운영되고 있지만, 임대주택이라는 낙인효과는 여전히 있다. 사회적으로 임대주택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른 일반 자가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긍정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위스테인 담당자에 따르면, 아직까지 심각한 차별이나 이와 관련된 사건이 생긴 적은 없으나 임대주택에 대한 좋지 못한 시선을 간접적으로 겪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초등학생 중에는 위스테인에 사는 친구를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단지 내 시설을 다른 아이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기 때문인 듯싶다. 아이들은 학교를 마친 후, 위스테인 비거주 친구들과 함께 위스테인 내 체육관이나 카페, 도서관 등을 이용하고 있다. 이것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게 해준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위스테인은 보린주택처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주지는 아니지만 모든 세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이는 마치 한국이 과거에 이웃 간의 정을 중심으로 서로 소통하고 돕던 문화와 비슷한 커뮤니티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스테인은 ‘공동체’라는 공동의 목표를 바탕으로 주민이 원하는 주거 단지로서의 모습을 스스로 갖추게 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가 일반적인 한국 사회에서, 위스테인은 아파트 환경에서 과거의 공동체 문화를 되살리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9. 한국형 노노케어 공공임대주택, 보린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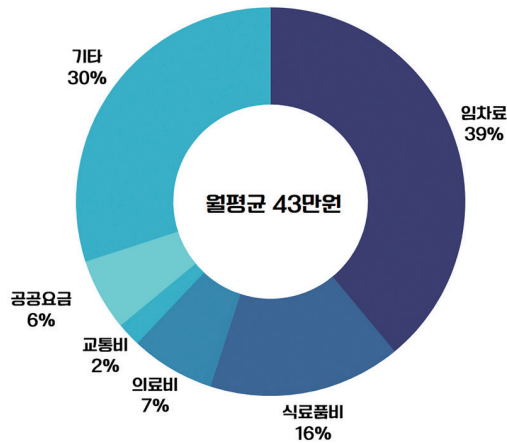
최근 들어 노인 빈곤은 한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며 이와 연결되어 주거 빈곤도 주목 받고 있다. 2020년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여인숙,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중 42.8%가 고령 가구였다. 또한 노인빈곤율이 기초연금 지급 이후부터 점차 줄어들어 2020년 기준으로는 40% 이하까지 떨어졌다.

이와 더불어 독거노인 문제도 주목받고 있는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 독거 가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독거+부부가구)는 2008년 66.8% 대비 2020년 78.2%로 증가하였다. 반대로 자녀동거가구는 2008년 27.6% 대비 2020년 20.1%로 감소하였다. 이는 한국 노인가구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가구 형태의 변화와 함께 최근 심심찮게 보도되는 고독사한 노인에 대한 기사는 독거노인들이 외로움에 취약하고 고독사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고독사와 관련된 공식 통계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2021년 정부가 추계한 2020년 무연고 사망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이라고 정의) 수는 2,880명으로 2016년 1,833명보다 무려 57%가량 증가했다. 정확한 수치로 추계할 수는 없지만,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와 무연고 사망자 수를 바탕으로 추정해 보면 고독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홀몸어르신 생계/주거비 지출

시흥1동 홀몸어르신 45명 조사



한국 정부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저렴한 임대주택 보급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보린주택은 노인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노노(老老)케어를 바탕으로 공동 거실을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형태로 건축되어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외로움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보린주택은 노인들끼리 스스로 돌본다는 개념을 내재하고 있다. ‘보린’이란 이웃끼리 서로 돕고 돌본다라는 뜻이고, 보린주택은 이러한 보린의 정의를 바탕으로 노인들이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보린주택은 어르신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금천구가 서울시 및 SH(서울도시주택공사)와 협력해 도입한 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이다. 금천구에 1호점부터 6호점까지 조성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다. 기본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금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무주택 1인 가구이다. 금천구는 임대보증금이 부족한 어르신을 위하여 임대보증금 90%를 연 2% 이율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6호점까지 총 91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보린주택 공동 거실 및 주방



보린주택 실 거주 환경



보린주택 실 거주 환경



보린주택 옥상 정원

보린주택에는 옥상 텃밭이 있어 어르신들께서 원하는 농작물을 기르실 수 있고, 주택 내부 공간은 턱이 없도록 설계를 함으로써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어르신께서 보다 편히 이동할 수 있다. 각층에는 공동 거실과 주방이 있어 어르신들께서 방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넓은 거실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이 공간에서 티브이를 시청하시거나 종이접기, 풍선아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다.

현재 보린주택에서는 홀몸 어르신에게 안부를 묻는 서비스, 세탁 및 방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의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치매예방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주택마다 관리실장님이 평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상주하며 입주민의 불편 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 전출 및 사망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잔여 세대에 대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홀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입주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에는 8세대가 보린주택에 입주했다.

보린주택은 저소득층 노인의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뿐만 아니라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방식으로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지만, 반대로 이들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보린주택과 같은 노인임대주택에서 노인들끼리 서로를 돌볼 수 있게 함으로써 돌봄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사회문제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고독 등도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한 것이 노인임대주택이다. 노인임대주택의 보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노인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인지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한 결과이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바꾸고 노인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Issue Focus Special Edition

**Best Practices in South Korea for 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ACKNOWLEDGEMENTS

AGAC Issue Focus Advisory Group – Jung-hwa Ha (Seoul National University), Sabine Henning (UNESCAP), Minjin Lee (Konkuk University), Silvia Perel-Levin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of the NGO Committee on Ageing in Geneva) and Margaret Young (Age Knowble) provided general guidance on the outline and theme of the report.

Above all, thanks to Changwon City Hall, Asan City Hall, Hongseong-gun Gyeolseong-meyoen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Seoul Metropolitan Center for Dementia, Incheon Songdo Senior Welfare Center, Seoul Seodaemun-gu Office, Chungju City Hall, Korea Consumer Agency Daejeon Support, Jeju Peace Human Rights Institute ‘What’, Geumcheon-gu Office, Deoham Corporation, Ansan City Hall, and Pocheon Police Station.

We hope this Issue Focus Special Edition will inspire domestic and foreign advocates of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and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older persons.



Eun-Hee Chi

Executive Director, ASEM Global Ageing Center (AGAC)

* This publication was fund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AGAC ISSUE FOCUS Advisory Group

AGAC Issue Focus Advisory Group is a group of experts focused on ageing and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and provides advice on the themes and topics of Issue Focus and feedback on the volumes. The advisers share their insights and views as well as their regional expertise around the world. Issue Focus addresses the issues and agendas of ageing that are relevant to all ASEM partners.

Members of the Advisory Group

- **Jung-Hwa Ha**

Jung-Hwa Ha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ageing and life course, social and behavioral determinants of health and mental health, social support, stress and coping, bereavement, end-of-life care planning and dementia care.

- **Sabine Henning**

Sabine Henning is Chief of the Sustainable Demographic Transition Section, Social Development Division at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leading work on ageing, youth, estimates and projections, international migra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urbanization, and project management.

- **Mijin Lee**

Mijin Lee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Konkuk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elder mistreatment including resident-to-resident abuse and institutional abuse, family caregiving, care workers, and social participation in later life.

- **Silvia Perel-Levin**

Silvia Perel-Levin chairs the subcommittee on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of the NGO Committee on Ageing in Geneva, which she chaired from 2014 to 2022. She works in the fields of human rights, ageing and health, with special research interest in violence, neglect and abuse.

- **Margaret Young**

Margaret Young is a Steering Group Member of the Global Alliance for the Rights of Older People, and the Founder of Age Knowble, a Canadian social enterprise. Her work is centered on the rights and human development of older people whereby intersectoral collaboration is key in achieving social change and social good.

CONTENTS

	Introduction	43
1	A System for Protecting Vulnerable Pedestrian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Changwon-si's Automatic Walking Signal Extension System.	44
2	Promoting the Mobility Rights of Older Persons by Employing Taxi Services	48
3	A Happy Meal Together	54
4	Best Practice for Older Person Care by Older Persons: three examples from Korea	57
5	Incorporating the concept of human rights into mapping: a human rights map for older persons	62
6	Crosswalk protection for the mobility impaired: the Longevity Chair	67
7	Older Persons Care Safe Housing in Ansan: Fusion of Gerontechnology and Housing Welfare	70
8	WE STAY; Korean-style coexistence housing	74
9	Borin House: public rental housing for mutual aid	78

Introduction

ASEM Global Ageing Center has been publishing “Issue Focus”, a periodical focused on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since 2020. “Issue Focus” is designed to contribute to raising awareness of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through regular identification of issues related to the subject and sharing of information. “Issue Focus”, published twice in 2020, has begun publishing three times a year since 2021, adding the Issue Focus Special Edition, which introduces instances of best practice for 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in Korea. This Issue Focus Special Edition is the second in the series, and aims to introduce exemplary cases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promotion of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at Korea and outside of Korea.

While there are many examples of overseas best practice being introduced and applied in Korea, any corresponding effort to promote Korean best practice abroad is relatively rare. This Issue Focus Special Edition is part of work by the ASEM Global Ageing Center to fill this gap. It introduces the reader to nine programs from across Korea that have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older persons and enhancing their human r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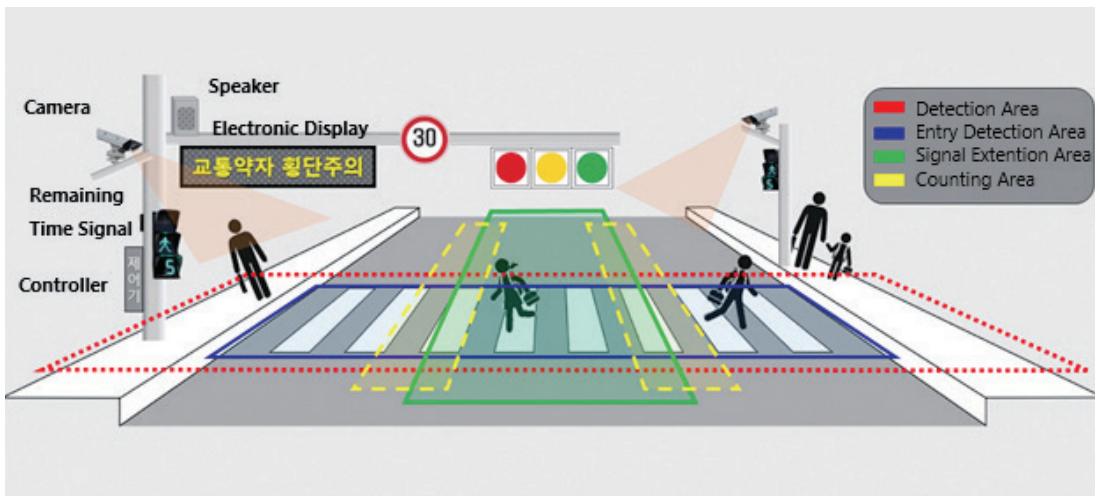
The nine best practices introduced in this Issue Focus Special Edition are:

- An automatic extension system for pedestrian signals in Changwon;
- Mobility rights for older persons promoted through use of taxis;
- The Happy Dining project for older persons in Incheon;
- Exemplary cases of older persons care by older persons;
- Guidance for older persons on Jeju Island through human rights mapping;
- Crosswalk protection for the mobility impaired: the Longevity Chair;
- Older Persons Care Safe Housing in Ansan: Fusion of Gerontechnology and Housing Welfare;
- WE STAY, innovative public-private rental housing in Gyeonggi-do;
- The example of Borin House in Geumcheon-gu, Seoul;

These nine cases were selected for this Issue Focus Special Edition because they were all conceiv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or considered to have implications for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Site visits, and interviews with the persons in charge, enabled us to gather vivid information about the effects of the projects in the field, and how they actually affect the quality of life of the older persons involved.

Through these examples, the ASEM Global Ageing Center is introducing to a wider audience instance of local governments attempting to tackle issues that are emerging as problems in Korean society -- mobility rights, housing, loneliness, and lonely death. With this edition of Issue Focus Special Edition, we hope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olicies, programs, and projects for 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1. A System for Protecting Vulnerable Pedestrian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Changwon-si's Automatic Walking Signal Extension System.



※ Artificial intelligence detects pedestrians who have not completed their crossing during a given walking signal time, and automatically extends it by 5 to 10 seconds. When a pedestrian who wants to enter the crossing late, a crosswalk entry ban alarm goes off and an electronic display informs drivers that there are people on the crossing.

Technological advances are progressing at a rapid pace and are increasingly affecting our lives. Artificial intellige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I) is one of the major areas of develop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Although the definition of AI is diverse and cannot be limited to one category, this report defines it as a system that acts like a human being (Turing, 2009). In Korea, AI is commercialized in various fields such as data mining, voice recognition, computers, and robots. The areas to which AI has been applied have been expanded.

In Korea, AI is contributing to improving older persons' quality of life. AI has already become an important part of the care and medical fields. For instance, care robots can relieve the isolation and loneliness of older persons living alone, and prevent a lonely death. AI is being applied in various ways not only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individuals but also in the social and public fields. This report introduces Changwon-si's Automatic Walking Signal Extension System to protect vulnerable pedestrians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AI designed to serve the interests of the community.

Changwon-si has been operating the country's first Automatic Walking Signal Extension System since November 2021. It was installe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Police Agency standards as a pilot project. This system automatically extends crossing time by 5 to 10 seconds when it recognizes pedestrians who have not managed to cross within the regular signal time. In order to protect vulnerable pedestrians and prevent accidents, the system was installed in the children's protection area in front of Yongho Elementary School in Uichang-gu, Yongho-dong, Changwon-si. Although this system was installed in a children's protection area, it is also beneficial to the older persons and other vulnerable pedestrians. (Project budget of Automatic Walking Signal Extension System is about 41 million KRW, about twice as much as the installation cost of general traffic lights of 20 million KRW)



Efficiency Test (Source: Changwon-si New Transportation Division)

According to the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57.5 per cent of traffic accident deaths among pedestrians in 2020 were of older persons. The proportion of older persons has increased three years in a row, from 46.6 per cent in 2018 and 57.1 per cent in 2019. In addition, 54.8 per cent of pedestrian accident deaths among older persons occurred while crossing the road. In this context, the Automatic Walking Signal Extension System appears essential for improving the safety of older pedestrians.

Although it has only been in operation for about four months, it is planned to gradually expand the system, along with the Leading Pedestrian Interval technique, if evaluation demonstrates positive effects.

* The Leading Pedestrian Interval system: A Leading Pedestrian Interval (LPI) typically gives pedestrians a 3–7 second head start when entering an intersection with a corresponding green signal in the same direction of travel (National Association of City Transportation Officials, 2022).

Changwon-si's Automatic Walking Signal Extension System is a clear example of how AI can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older people by assisting vulnerable pedestrians, including older persons. In terms of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the use of AI is expanding from micro-care, medical care, and automatic driving to solving the inconveniences of older persons in their daily lives. Older persons are often vulnerable as pedestrians, an inevitable consequence of physical ageing. Recently,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been making great efforts to help and support the daily lives of older persons. The Automatic Walking Signal Extension System is not only an example of how AI can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older persons, but is also an example of universal

welfare for older persons. The commercialization of AI is likely to be one of the essential factors in improving the daily lives of older persons, and its importance is expected to grow. There are philosophical, moral, and social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use of AI; however, in this report can show what it can contribute to the human rights and welfare of older people.



Banner of the Automatic Walking Signal Extension System
(Source: Changwon-si New Transportation Division)

Reference

Turing, A. M. (2009).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 In Epstein & Peters (eds), *Parsing the Turing Test* (pp. 23-65). Springer, Dordrecht.

National Association of City Transportation Officials. (2015, July 24). Leading Pedestrian Interval. <https://nacto.org/publication/urban-street-design-guide/intersection-design-elements/traffic-signals/leading-pedestrian-interval/>

2. Promoting the Mobility Rights of Older Persons by Employing Taxi Services

With the population ageing, increasing attention is being paid to the mobility rights of older persons. Many older persons live healthier lives and have more cars than previous generations, so they enjoy better mobility rights. However, the government still classifies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older population as “mobility handicapped”. Therefore,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making efforts to secure better mobility rights for older persons.

* Mobility handicapped refers to a person experiencing hardship in using daily transportation, including the disabled, older persons, pregnant women, and persons accompanying infants.

To alleviate the high cost of taxi services for many older people, and actively utilize their mobility and convenienc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providing financial assistance so the mobility handicapped can use taxis and simultaneously the income of taxi drivers can be secured. According to the National Private Taxi Transportation Business Association, as of December 31, 2021, there were approximately 250,000 taxi vehicles in Korea. In Seoul 2018, the average monthly income of taxi drivers registered with companies was 2,170,000 KRW. In its analysis of the 2020 income of waged labor, Statistics Korea indicated the average monthly income of Korean workers in December 2020 was 3,200,000 KRW, which suggests taxi drivers earn 1,000,000 KRW less than the average worker in Korea. This report note introduces several examples of programs run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achieve the twin goals of securing the income of taxi drivers and meeting the transport needs of older users, promoting their mobility rights. It also describes a program which utilizes taxi services to protect older persons with dementia.

1. Asan-si, 'Pick-up Taxi'(100 KRW Taxi)

In November 2012, Asan-si, Chungcheongnam-do, introduced what it calls a Pick-up Taxi, the first in Korea. The program was developed in light of the fact that population ageing has reduced demand for public transportation. This has led to several bus routes being discontinued and business operations downsized, as a result of which many areas are without access to public transport. Local government intended to boost the local economy by ensuring transportation assistance and mobility rights for persons living in remote areas.

The 100 KRW taxi ride is a government-funded service that provides transportation to areas not served by public bus routes. Although the fare could actually cost much more than 100 KRW, given the distances sometimes involved, for users this is generally a highly affordable taxi service, since they pay only 100 KRW and local government pays the rest. Asan-si enacted an "Ordinance for Promoting the Transportation Welfare of citizens living in a remote area", and thereby established what had been the pilot program for the Pick-up Taxi as a regular official program.

The program aims to provide a service to citizens living in or visiting areas that lacking public bus routes. The service is available within thirty minutes of the user requesting a ride. The fare is 100 KRW within 3km from the point of departure to the bus stop. Exceeding the 3km limit is allowable up to a maximum of 1,600 KRW, which is paid by the local government. Currently, Asan-si provides the service to 107 local villages such as Dogo, Seonjang, and Songak. Business hours are from 7 AM to 9 PM, and drivers ply between the villages four to eight times a day. The average daily number of Pick-up Taxi users in Asan-si is about 270 persons.

The Pick-up Taxi is popular among locals for providing much-needed transportation in remote areas while reducing the financial costs of using a taxi. It also benefits the bus companies by not operating routes yielding low revenues. Therefore, both service provider and consumer can benefit. Songak-myeon, Asan-si, reduced bus service vehicles from six to four, and employed more Pick-up Taxis, thus saving money while promoting the convenience of local users. Now Jangsu-gun(Jeollabuk-do), Cheongju-si(Chungcheongbuk-do), and Pohang-si(Gyeongsangbuk-do) provide similar taxi services, following the example of Asan-si.

A user commented, "It was challenging to visit downtown since the bus stop was far

from the village. Now, we can easily get to the bus stop by riding a taxi”. Drivers are also responding positively to the program, since they can both help local residents and get customers outside the usual rush hours.



‘Pick-up Taxi’, Asan-si(from Asan-si)

2. Gyeolseong-myeon, Hongseong-gun: A program for accompanying to hospital older persons who live alone

Gyeolseong-myeon, Hongseong-gun, has a population of 2,057, and among them are 1,051 persons above the age of 65–51 per cent of the total population. Gyeolseong-myeon initiated a program for accompanying to hospital older persons who live alone, to ensure their mobility rights, which are threatened by extreme ageing and the absence of public transportation. The program aims to help older persons living alone who have difficulty attending hospital because of personal mobility problems or lack of transportation.

The service dispatches two people, a taxi driver and a volunteer, to accompany an older person from their residence to the hospital. The program not only provides mobility support, but also helps older persons with registration and payment in hospitals and pharmacies. Every user can enjoy the service twice a month, 24 times a year, for a fee of 1,000 KRW per call(the local government pays the taxi fare). The program started as

a pilot in October 2021. It expanded significantly during 2022; the county estimated the user pool increased from 39 users in 2021 to about 90 users in 2022(39 existing users, plus 52 other older persons living alone in remote areas). Taxi drivers earn 40,000 KRW per fare, and accompanying volunteers are paid 20,000 KRW per fare, both from the local government budget.

One user commented, “My son had to come over and take me to the hospital for regular medical treatment. I recently had to visit a dermatologist, but my son couldn’t come every time. The fact that the consultative group(consultative group for Local Social Security) is providing an accompanying service helped immensely. Since I can’t move freely without the help of others, without the service I would have been severely ill. Thank you for the service.”



Accompanying to hospital for older persons living alone
(Source: Gyeolseong-myeon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3. Seongdong-gu, Seoul: Dementia-Friendly Taxi Service

Seongdong-gu, Seoul, is providing a Dementia-Friendly Taxi Service, an outstanding case of community care in Korea. The National Institution of Dementia reports there were approximately 886,000 people with dementia in 2021, 10.33 per cent of the total older population. Of this number, 147,000(16.6 per cent of the total) live in Seoul. This means 9.58 per cent of older persons living in Seoul have dementia. This is slightly lower

than the national average, but Seoul has the most persons living with dementia after Gyeonggi-do. 9.58 per cent is narrowly lower when comparing the ratio of the older population living in Seoul(1.6 million) to the total older population of Korea(8.9 million); Seoul is home to about 18.0 per cent of the country's older population(Statistics Korea, 2021).

Local governments, including Seoul, provide community care programs to support ageing in place instead of in institutions. This is to ensure the well-being of older persons. Seongdong-gu designated Geumho-dong(2019), Seongsu-dong(2020), Gaje-dong(2020), and Majang-dong(2022) as Dementia-Friendly Towns, building appropriate infrastructure. A Dementia-Friendly Town intends to support patients and their families to engage actively with local stores, transportation services, local businesses, and other relevant institutions. Every store displays a sticker informing people that they are Dementia-Friendly.

As part of the program, Seongdong-gu provides a taxi service to manage potential problems for people with dementia when they go out. Drivers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llness and provide a safe travel service for people with dementia, in order to bring positive change to the local community(Dementia Safe Center of Seongdong-gu, 2022). The Dementia Safe Center of Seongdong-gu made a business agreement with five local taxi companies, then distributed 300 stickers and 300 car air fresheners with the Dementia-Friendly Taxi logo. By these means, local government can advertise the concept of a Dementia-Friendly Town, and the Dementia Safe Center, and raise awareness.

Taxi drivers attend an education program in the Dementia Safe Center of Seongdong-gu to learn relevant knowledge. The service does not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the fare. However, it makes use of the fact that taxis move around the various areas. A taxi driver can discover older persons with dementia wandering around the streets contacts the Dementia Safe Center, and rescue them before an emergency. Taxi services for older persons are expanding nationwide. Sunchang-gun, Jeollabuk-do also provides taxi services for older persons with dementia. It delivers mobility services for older persons with mild dementia, taking them from their homes to the Dementia Safe Center, free of charge.



‘Dementia Safe Sticker’(Dementia Safe Center of Seongdong-gu)

Mobility rights are fundamental human rights. The capital area of Korea has one of the world’s most well-developed public transportation systems. Older persons living in the area have better mobility rights when compared to others elsewhere in the country. The trend of providing taxi services such as the 100 KRW Taxi and the 1000 KRW Taxi outside Seoul is getting positive feedback because it complements the weak public transport systems of the rural regions, providing convenience and financial support for users, and ensuring income for taxi drivers. Promoting mobility rights by utilizing taxi services is an exemplary model for addressing the gap in transportation servic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Furthermore, Seongdong-gu’s Dementia-Friendly Town, with its various programs such as the Dementia-Friendly Taxi, can be a model for community care in Korea, improving quality of life for dementia patients.

3. | A Happy Meal Together

Until the early 2000s, eating alone in a restaurant was unusual in Korea. There were not many restaurants that offered seats to individuals eating alone, and the social atmosphere did not encourage it. However, it is now common to find people eating on their own in a restaurant. Nowadays, ‘Honbab’, a portmanteau term for eating alone, is commonly used in Korea.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people in Korea who prefer eating together rather than eating alone. Several studies have found that older persons living on their own are more economically,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vulnerable than other groups (Ryu & Lee, 2019; Kim, 2022; Lee & Choi, 2021).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 the proportion of older persons living alone has increased rapidly, from 3.8 per cent in 2000 to 6.1 per cent in 2010 and 7.9 per cent in 2020. Older persons living on their own attract social attention because they often experience problems such as depression, poverty, loneliness, and suicide. In order to reduce the vulnerability of this group, the Korean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making efforts to provide communal living homes and rental apartments, deliver lunch boxes, and distribute Artificial Intelligence (AI) care robots. This Report Note introduces a project called ‘A Happy Meal Together’, introduced by the Songdo Senior Welfare Center in Incheon, South Korea, in which older persons living alone cook and eat together.

The project has two purposes. First, based on Article 4 of the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Responsibility for Promoting Health and Welfare), Incheon Metropolitan City sets out to improve the health of older persons in the region by providing customized meals that address diabetes, high blood pressure, and so on. Secondly, the project promotes opportunities to revitalize small-scale social relations through joint cooking and dining programs.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every Wednesday, June to November 2022, from 14:00 to 16:00, at the Songdo Senior Welfare Center. A total of 60 older persons, including those living on their own, those with depression, and those on low incomes, are invited to participate in classes on diet and cooking, and engage in small-scale co-cooking and eating. This project consists of a total of six sessions, and all six sessions are conducted with the same curriculum. Each session consists of four classes, and each class is held once a week with around ten participants. Food is selected from a low-salt diet tailored to take account of diabetes, high blood pressure, and so on, and all ingredients are prepared at the welfare center. The total program budget is 6.8 million won.



'A Happy Meal Together' class photo (Source: Songdo Senior Welfare Center)



'A Happy Meal Together' class photo (Source: Songdo Senior Welfare Center)

A satisfaction survey of 'A Happy Meal Together' project has been conducted, so that it can be used as a guide to whether the program will continue in the future. On 13 July 2022, the first session (total 6th session) was completed, and the first satisfaction survey of the project was conducted. This survey asks questions about reasons for participation,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 and changes after participation. Several participants said that they had participated in the project in order to learn how to cook meals. Most respondents said they were satisfied with 1) the recruitment and selection process; 2) the lecture, and information about diets; 3) the environment, including the venue, and the goods provided; 4) their relationship with other participants; and 5) the project overall. One participant said, 'It was good that the nutritionist called me, and I could cook and eat with my peers. I want to participate in the next section as well.'

This project is significa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Older people who live alone lack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various social activities compared to other age groups. The project, 'A Happy Meal Together', is meaningful in that it promotes the participation of older persons in social activities and enables them to spend time with others. The high levels of satisfaction recorded by participants prove that the project is successfully contributing to 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in the Incheon Songdo community. The Songdo Senior Welfare Center is striving to plan and implement other diverse programs t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by discovering further blind spots in the society – like the problem of older people in its community eating on their own.

Reference

Ryu, H., & Lee, M. A. (2019). Eating alone and depressive symptoms of Korean older adults: Examining differential effects by gender. *Survey research*, 20(1), 1-27.

Kim, H.S. (2022). Effect of Eating Alone and Type of Meal Skipping on Depression in the Elderly. *Korea Society for Wellness*, 17(2), 329-336.

Lee, S. B., & Choi, Y. J.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Eating Alone and Quality of Life: A Comparison by Genera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2(5), 1165-1175.

4. Best Practice for Older Person Care by Older Persons: three examples from Korea

The concept of ‘Older person care by older persons’ involves a healthy older person regularly visiting another older person who has difficulty with mobility in order to help them in their daily lives with cleaning, washing, cooking, washing dishes, and companionship (Korea Seni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According to the 2021 senior citizen statistics, the population aged 65 or older in 2021 is 16.5 per cent of the total population, and Korea is expected to enter a super-aged society, with 20.3 per cent in 2025. By 2060, people aged 65 and over will make up 43.9 per cent of the population. ‘Older person care by older persons’ is a response to this trend, and is in the spotlight partly because it represents a new job prospect for older persons.

According to the ‘Older person care by older persons Status Survey’ publish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November 2018, the number of ‘Older person care by older persons’ projects (‘Older person care by older persons’ is the government’s projects in which both service participants and recipients are older persons) slightly decreased, from 80,345 in 2015 to 73,302 in 2017, but the number of projects increased slightly, from 1,219 to 1,256. The cumulative number of participants increased from 91,203 to 92,309, and the number of beneficiaries increased from 130,499 to 140,055. As of 2020, there were about 79,000 ‘Older person care by older persons’ jobs, more than 10 per cent of the total jobs for older persons. Advanced foreign countries such as Japan, the United States, and Norway run a wide variety of ‘Older person care by older persons’ projects, and Korea is also carrying out diverse projects such as ‘Older person care by older persons project through the disabled older person’ in Seodaemun-gu, Seoul, ‘9988 Happiness Guardian’ in Chungcheongbuk-do, and ‘Senior Consumer Protector’ by the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 'Older person care by older persons by the older person with disabilities' in Seodaemun-gu, Seoul.

Seodaemun-gu (Seoul consists of 25 administrative districts, gu), Seoul, has selected 15 people with disabilities aged 50 or older as care providers in the project, which cares for 75 older persons living alone. The project aims to stabilize income for disabled persons, prevent the lonely deaths of older persons living alone, and enable disabled persons to participate in. Project participants as care providers receive employment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nd private insurance (injury and liability for compensation). They work three hours a day, 19 days a month (57 hours), and receive 800,000 KRW (about 630 USD) per month. The project was selected as the 'Best Practice for Local & Public Sector Jobs' in the annual competition host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 2017, and also won the Presidential Award.

Ms. Jeong (66, female) has been participating in this project as a service provider for four years. She was deeply moved when a 91-year-old older person she looks after, who was living alone and isolated after her husband's death, said, "You're better than my daughter." "I visit the older lady regularly, we eat together, talk a lot, and I go to the hospital with her, and I think that is why she opened her heart. I've only been receiving from society because I'm disabled, but now I'm proud and really happy to think that I'm also contributing to the community." Ms. Jeong said with a big smile.

The project of 'Older person care by older persons through the disabled older person' helps the socially disadvantaged, provides an employment opportun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have difficulties in participating in the labor market, and prevents loneliness. The project is in line with the government's policy of realizing community care for a healthy society as well as overcoming loneliness and preventing lonely deaths among older persons living alone.



'Older person care by older persons by the older person with disabilities'
(source: Seodaemun-gu office)

2. '9988 (staying active until 99 years old) Happiness Guardian' in Chungju-si

Chungcheongbuk-do (North Chungcheong Province, located in the middle of South Korea) launched the '9988 Happiness Guardian' as a pilot project in 2014. Chungju-si (one of the cities in Chungcheongbuk-do) has continued with this project since 2015. The '9988 Happiness Guardian' project is an older person care by older persons project that has selected 840 older persons as service providers who have lived in the village for many years and have good health, relevant experience, and a spirit of service. These persons visit economically vulnerable older persons in the same village. Each participant visits two to three service recipients and provides services such as emotional support, safety checks, etc. three hours a day, 30 hours a month. They are paid 270,000 KRW (about 210 USD) per month, together with incidental expenses of 180,000 KRW (about 140 USD) per month. The total budget for the project is about 2.8 billion KRW (about 221,500 USD). Currently, Chungju Senior Club, Chungju Branch of the Korean Senior Citizens' Association, and Chungju Senior Welfare Center are operating this project.

The '9988 Happiness Guardian' project has two purposes. First, it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welfare for older persons while providing them with various jobs and opportunities for social activities, so that older persons can lead a lively and healthy life after retirement. Second, it aims to establish a social safety net for vulnerable older persons who need care due to a surge in senile diseases such as dementia and stroke.

Older persons in small cities are relatively less well supported by social policy than those in large cities. Compared to other regions, the metropolitan area has more services and benefits. Many studies argue that rural areas lack policy support compared to cities; the '9988 Happiness Guardian' project provides services suitable for the local community based on the regional specificity whereby there are more older persons in rural areas than in the cities. Further, this project solves the traffic inconvenience problem in rural area by providing care among residents in the same neighborhood. It also has the advantage of promoting easy bond formation between service providers and recipient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018). This project shows that there should be more projects that respond to the needs of older persons to create more community-tailored schemes for care of older person by older persons.



'9988 (staying active until 99 years old) Happiness Guardian'
(Source: Chungju City Hall)

3. 'Senior Consumer Guardian', a project of the Korea Consumer Agency

The 'Senior Consumer Guardian' project trains older counselors and deploys them to welfare centers and community centers to provide counseling for older persons on practical matters such as preventing them becoming victims of fraudulent advertisements. This project protects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older generation, who have relatively less access to information services and are less familiar with the latest information technology than younger generations. When the modifiers 'eco-friendly' or 'functional' are attached to products, older persons tend to purchase them without doubt, which often leads to them economic loss. This demonstrates that the

idea of 'older person care by older persons', previously limited to care, can be expanded to other areas.

This project started as a pilot program in Daejeon in 2019, as a new project, and trained a total of 34 senior consumer guardians. 213 people were recruited in 2020, 355 in 2021 and 500 in 2022. In 2021, 355 senior consumer guardians in 13 regions across the country corrected 1,229 cases of fraudulent advertising and harmful products for older persons. It was commended as excellent in the civic participation category in the '2021 Innovation, Collaborat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Assessment'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The project has brought about positive outcomes: providing jobs for retired older persons in public service activities, and helping to solve problems related to information gap that affects older persons negative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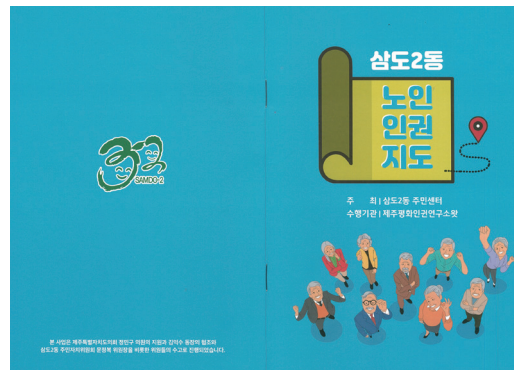


5. Incorporating the concept of human rights into mapping: a human rights map for older pers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UN)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have recently published reports related to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Representative examples are the UN's "Analytical study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older persons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and "Report of the Independent Exper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by older persons,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the data gap". Constant publication of reports such as these demonstrat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increasing interest in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As interest has grown in Korea, Korea has launched several projects intended to embrace the perspective of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One of these projects is Korea's first human rights map for older persons, which was developed on Jeju Island. Jeju is experiencing a continuous increase in its older population, but older people lacked information about where they could go for safety, support, and enjoyment. Older persons, provincial councilors, and human rights activists collaborated to draw up a human rights map for use by the island's older population.



Samdo 1-dong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Map



Samdo 2-dong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Map

The older persons' human rights map was created in three stages: education, survey, and map production. For the education stage, a group of human rights defenders (older persons) was selected to participate in map-making from among the Jeju Samdo-dong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and the village elders' association. Education on human rights for older persons included improving understanding of basic human rights concepts and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information regarding the current status of older persons in Korea as a whole and on Jeju Island in particular; and training in the methods of village field surveys. For the survey itself – the second stage – a group of human rights defenders (six people per village) was tasked both with distributing the survey forms and also collecting information on places considered meaningful from the viewpoint of human rights for older persons. In the final stage, a workshop was held to collect all the survey forms and collate all the information that had been gathered. Meaningful information was selected (public interest information was included; commercial and advertisement information, and specific religious facilities, were excluded) to produce a human rights map for older persons.

The older persons' human rights map was produced for the villages of Samdo 1-dong and Samdo 2-dong with a budget of 5 million won from the provincial government. The map contains information on the status of ageing in Jeju, the 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the status of human rights for older persons, and an introduction to Samdo-dong, along with vast amounts of information on bus stops, hospitals, welfare facilities, educational and hobby spaces, banks, hospitals, and tourist attractions. This provides useful information not only for older persons living in the area but also for those moving to Samdo-dong and for travelers. Currently, the older persons' human rights map is distributed in Samdo 1-dong and Samdo 2-dong municipal offices and welfare centers so that people can access it easily.

The older persons' human rights map was produced only for the small villages of Samdo 1-dong and Samdo 2-dong, so there was some limitation on the amount of information that could be included. For instance, social service facilities that can promote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are often installed in central premises that serve a wide area, so it was difficult to include such information for small villages. However, efforts were made to include information related to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in the villages as much as possible, and information on facilities in metropolitan areas was provided through additional explanatory sections. Entertainment facilities and restaurants used by older persons could not be included as they were commercial properties and such information was judged to constitute advertisement. Although it was not possible to find a way to indicate this information in the current version of the human rights map for older persons, the Jeju Peace Human Rights Institute What (JPHRI-WHAT) is devising methods to include the information in the second human rights map for older persons being produced this year (2022).



Samdo 1-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Samdo 2-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Samdo 1-dong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Map



Samdo 2-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Despite the limitations, the human rights mapping project for older persons has several benefits. First, older persons, human rights activists, and provincial councilors who have lived in Samdo-dong for a long time participated. and included realistic and useful information on the map. Secon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human rights perspective was introduced into map-making, providing an opportunity to inform the local community about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From this perspective, the production of the older persons' human rights map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older persons' right to know, and to freely access a diversity of information. Recently, vast amounts of information have been made easily accessible through electronic devices such as smartphones. However, older persons still tend to prefer analog methods rather than digital ones such as kiosks and electronic devices. The older persons' human rights map helps older persons in Samdo-dong to find various facilities and institutions that are necessary or useful. Providing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such as smartphone education and kiosk education is one way to ensure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But the very project of creating a human rights maps for older persons is in itself a way to ensure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An updated human rights map is being produced in 2022, and this is expected to develop into a long-term project in the future.

Interview with Jeju Provincial Assemblyman Min Gu Jeong

Q. Please introduce yourself briefly.

A. My name is Min Gu Jeong, a member of the Jeju Provincial Council. As a native of Jeju Island, I was active in a civic group for over 20 years before becoming a provincial councilor. I decided to run for the provincial council in order to practice the ideas I had based on the activities of civic groups in various institutions.

Q. Is there any reason you are taking an interest in older persons' human rights?

A. When I ran for the provincial council, I had a goal to establish a general welfare center for older persons t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in Samdo 1-dong and Samdo 2-dong, and to create synergy between politicians and activists through collaboration with various activists. The first step was to create a human rights map for older persons. Samdo 1-dong and Samdo 2-dong have a high proportion of older people among the population, but older persons had no place to go in the neighborhood. I felt the need to create a variety of entertainment for older persons and to provide information that could be easily obtained; this was realized through the creation of a human rights' map for older persons.

Q. Do you have any other projects related to older persons and their human rights?

A. My mother suffered from the effects of a stroke for a long time, and because of this experience, I am also interested in death with dignity, and with hospice provision. I plan to support related projects in the future. Human rights guidance for older persons is not a short-term one-time project, but a long-term project. This year's new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map will contain richer content, including regarding death with dignity, and hospice care. We plan to carry out the project in conjunction with various organizations so that the life of this project can be extended in the long term and spread to other regions.

In addition, we are planning a survey on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this year and next. As far as I know, there are no surveys on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except for data from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We plan to conduct a variety of projects based on an investigation into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older persons on Jeju Island.

6. Crosswalk protection for the mobility impaired: the Longevity Chair



Crosswalks are common pedestrian facilities and road markings that can be found all over the world. According to the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KoROAD), the number of jaywalking deaths in 2021 was 271, down from 562 in 2017. This suggests that several ideas that help people contain their impatience or manage physical discomfort during long signal times have been effective. One of them is the “Longevity Chair”, an ideal product that installs a simple chair at the crosswalk for older persons who have difficulty standing for any length of time.

Chang Hoon Yoo, a corporal in the police department at the Pocheon Police Station, found out while serving as head of traffic management at Namyangju Police Station in Gyeonggi-do in 2018 that more than half of the pedestrian fatalities in his area were

persons over the age of 60. He learned that many accidents occurred when older persons crossed the road without waiting for a pedestrian signal because their legs hurt. This background led to the development of a Longevity Chair, which means that one can live a long life if they are prepared to wait.

The Longevity Chair won a special prize in the “3rd Public Design National Idea Contest” co-hos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in 2022. The chair, first installed in Namyangju in 2017, has now been expanded nationwide. The Longevity Chair is a folding chair and is attached to the pole that carries the traffic lights. During the signal waiting time, the mobility handicapped, including older persons, can sit and wait; the chair automatically folds away when the signal changes. The death rate of older persons from traffic accidents and jaywalking has been decreasing in areas where Longevity Chairs are installed.

The Korean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investing large budgets to improve quality of life for older persons. Although large-scale projects are important, the success of the Longevity Chair shows that a small-scale idea that aims to solve a real life problem can achieve great results without the need for large-scale budgets or a huge number of personnel. Efforts such as installing tents at crosswalks to help people escape the heat for a while in summer, and installing LED lights to help people cross the crosswalk safely at night, are extensions of this idea.

In addition, products designed with ideas from everyday life, such as the Longevity Chair, have the effect of protecting older persons, who are at high risk of traffic accidents. It is not only a consideration for older persons to sit and rest for a moment while waiting for a signal, but also contributes to lowering the actual traffic accident death rate by preventing them from stepping out into the traffic. This reduces the social cost of accidents.

The Longevity Chair is meaningful in terms of human rights for older persons. It helps promote the mobility of older persons, who are vulnerable to use transportation, and helps create an age-friendly environment. Recently, concepts such as community care and ageing in place are being incorporated into the projects of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meaning that society is more ready to deal with the natural phenomena that occur with ageing. Projects like the Longevity Chairs are increasing. With these age-friendly ideas, and with projects related to older persons that require large budgets continuously increasing, it is expected that most older persons in Korea will soon be able to enjoy “longevity” in their local communities.



7. Older Persons Care Safe Housing in Ansan: Fusion of Gerontechnology and Housing Welfare

Housing, one of basic needs along with food and clothing, is one of the most crucial factors for humans. In Korea, owning a home has been one of the important parts of life, but in recent years, many ordinary households have difficulty in affording the soaring housing prices. The rise in housing costs not only becomes a burden to all generations across the country but also poses a bigger economic problem for older persons who do not engage in economic activities.

In particular, older persons who have physical limitations due to aging may struggle with living in typical houses that have door sills, which make it difficult to walk around or use a wheelchair. In consideration of these special characteristics of older persons, the Korea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recently built and supplied a variety of rental housing customized for older adults. Older persons care safe housing in Ansan, newly constructed two years ago, is a cutting-edge older person rental housing with an interior designed for the convenience of older persons.



(Il-dong Care Safe House)

(Gojan-dong Care Safe House)

Ansan’s older person-tailored care safe housing was provided under the agreement between the city and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 and started accepting residents in 2020. The purpose of this housing is to establish a regional system that provides integrated services so that residents in need of care can live in their own home rather than staying in a hospital or a facility. Currently, the project is being implemented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Seoul, Gwangju, Bucheon, Jeju, Busan, Ansan, and so forth/.

Ansan is currently operating two older persons care safe houses for a total of 19 households, nine in Gojan-dong and 10 in Il-dong. The lease term is 10 years, and the monthly rent varies slightly from building to building, but it is usually around KRW 250 thousand (Approx. USD 190) with a deposit of KRW 5 million (Approx. USD 3770). Qualified applicants who satisfy certain conditions, such as those who do not own a home, those who have been discharged from a medical institution, and those who have chronic diseases, were selected with priority among Ansan residents aged 65 or older.



Shower facility with a foldable stool



Bathroom for older persons: automatic height-adjustable washbasin and ceiling heater



Master swi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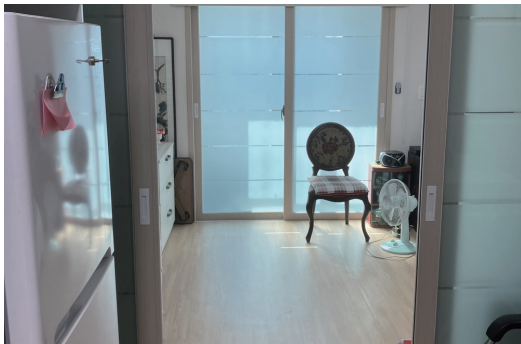
Door without sills



Automatic height-adjustable drying rack in patio



Wide front door for wheelchair access



House interior



Corridor with safety bars (auxiliary handrails)

A unit of a typical older persons care safe housing is about 33 square meters and consists of a living room, a bedroom, and a patio. Door sills are completely removed from the house and safety bars are installed in a way to assist older persons to move around more easily. The wider front door makes it easier for wheelchairs to enter and the interior was also designed for the convenience of older persons. For older adults who may forget to turn off the lights or gas, there is a master switch at the entrance that can cut all power at once. The bathroom is equipped with a safety bar that can be used by wheelchair users, a washbasin that can be height-adjusted using an automatic switch, and a foldable stool that can be used during a shower. In addition, a ceiling heater is installed in the bathroom for

the winter season. And an automatic height-adjustable drying rack is built in the patio.

The housing was developed with not only the innovation of the internal facilities, but age-friendly environment in mind, such as a park where older adults can take a walk, a hospital, and easy access to transportation. Furthermore, a common space for programs and meetings is located on the first floor to help residents socialize with various people and integrate into the community. The activities have contributed to diversifying relationships for older adults as local community members also participate together with residents, whose satisfaction, therefore, is very high. As a result, several local governments are benchmarking the project to develop and supply similar types of older person rental housing.

This housing is different from at-home long-term care and even a general nursing facility. In the case of receiving long-term care services at home, a caregiver comes and helps with housework for several hours. In older persons care safe housing, older persons can receive more diverse benefits, such as regular visits by a doctor, a pharmacist and a nurse, and transportation services. It is also different from a general nursing facility in that older adults can receive care services in their own home and live independently. Furthermore, residents of older persons care safe housing tend to think of their neighbors as family and take care of each other. In an actual case, an older adult was able to overcome a near-fatal heart problem by asking their next-door neighbor for help to call the emergency number.

The above project in Ansan received the Excellence Award at the Korea Housing Welfare and Culture Awards hosted by the Housing Welfare and Culture Association an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2022 and has been recognized for its excellence to the extent that the faculty from Oxford University and Oxford Brookes University visited the site. A person in charge of older persons care safe housing in Ansan said that more of this type of home will be built in other areas of Ansan in the future, and that they still receive continuous acceptance inquiries even after the move-in was completed and requests for benchmarking data from other regions. These episodes show that Ansan's older persons care safe housing has achieved significant success as a leading project in the field of housing welfare for older persons. Universal Design's older person rental housing, which is equipped with the latest technologies (Gerontechnology) in consideration of the physical conditions of older persons, will establish itself as an option for older adults in the future, and is considered as a major project that can lead the diversification of housing welfare.

8. WE STAY; Korean-style coexistence housing

If Borin House is public rental housing for low-income older persons, WE STAY targets the middle class.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s of 2020, there were a total of 408,349 rental housing units nationwide, of which 127,496 (about 31 per cent) were public rental housing and 280,853 (about 69 per cent) private. This is an increase of about 2.5 times compared to the 150,962 units rented in 2011, and this reflects the reality of Korean society, where it is increasingly difficult to obtain housing.

One of the latest rental housing types in Korea is WE STAY, which is being promoted as a pilot project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E STAY is Korea's first cooperative-type publicly supported private rental housing scheme; it is currently established in Byulnae, Namyangju, and Jichuk, Goyang. What sets it apart from other rental housing is the scale of rental fees and that residents directly participate in the design process.

WE STAY has three main purposes: 1) promoting the welfare of members and spreading a culture of mutual aid through autonomy, self-reliance, and self-governing cooperative activities; 2) securing stable housing rights and spreading alternative housing communities through housing cooperatives; and 3) inducing the spread of community culture through the association of cooperative projects with the local community. Residents in WE STAY properties can establish relationships with neighbors through community facilities and programs. Apartments are supplied through cooperatives in a relatively stable residential area. This can be said to have provided an opportunity to try to restore community values through cooperatives in the form of apartment-living in Korea.



Communal library



Communal kitchen



Ensemble room available for rental



Communal children's playground



Senior Center



Communal gym



Communal garden



Communal playground

The biggest feature of WE STAY is that it is cooperative-type publicly supported private rental housing. Residents participate directly in the operation of the complex. Rather than simply living in rental housing, residents strengthen their sense of ownership by jointly making decisions related to the apartments. In addition, by applying universal design during construction, the facility is designed so that older persons, children, and the disabled, can use it without any inconvenience, since there are no threshold stairs. In addition, communal spaces such as a communal library, kitchen, children's playground, meeting room, gym, and cafe are created to be freely used by all residents. The communal community space is also made with a universal design, without a threshold, with a washbasin for children and a toilet for the disabled. An elevator provides older and disabled persons with easy access to the facility.

Older persons living in WE STAY actively participate in its activities. A senior center was created in the complex so that older persons can freely use this space. Older persons have formed the 60 Plus Committee and the 60 Plus Happiness Cooperative to engage in various activities within the complex. Since July 2022, they created a newsletter and distributed it within the complex to promote the various activities of older persons. They have also cultivated the village vegetable garden together and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n addition, older persons are making great efforts to coexist intergenerationally by receiving gymnastics classes and smartphone education through talent donation activities within the complex, and becoming instructors themselves and teaching children. Older persons in the complex are providing a great deal of assistance to the development and welfare of WE STAY.



We Stay Jichuk District



We Stay Byeolnae District

Although WE STAY is based on a different concept from the existing rental market, it still experiences the stigma of being rental housing. Socially, there is a somewhat less positive view of rental housing compared to ownership. According to the WE STAY staff, there have not been any serious discriminatory incidents yet, but residents are experiencing indirect negative views of rental housing. However, recently, some envy of students living in WE STAY has been expressed by oth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But since children are allowed to use the facilities in the complex with other children, so after school, children who live in WE STAY can use the gym, cafe, library, etc. with their friends who live outside, this goes some way to overcome negative views of rental housing.

Although WE STAY is not a residence for older persons like Borin House, it has formed a community where all generations coexist harmoniously, similar to how Koreans in the past communicated with and helped each other based on friendship between neighbors. WE STAY is important because it respect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guarantees the right to live by letting residents decide what form they want as a residential complex based on the common goal of “community”. In Korean society, where apartments are common, WE STAY is an attempt to realize a new type of housing welfare that revives the community culture of the past in an apartment environment.

9. Borin House: public rental housing for mutual aid



Poverty among older persons is a serious social problem in Korea, and in connection with this, housing poverty is also attracting attention. According to a survey in 2020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42.8 per cent of households living in non-housing, such as inns and gosiwons (boarding rooms), were older persons. However, the poverty rate for older persons gradually decreased after the basic pension was introduced, dropping to below 40 per cent as of 2020.

In addition, the problem of older persons living alone is attracting attention. According to the 2020 Statistics on the Aged, the number of older person single households (living alone + married couples) increased from 66.8 per cent in 2008 to 78.2 per cent in 2020. Appropriately, the number of households living with children decreased from 27.6 per cent in 2008 to 20.1 per cent in 2020. This shows that the size of older persons' households in Korea is continuously decreasing. Along with these changes in household types, articles about frequent cases of the lonely deaths of older persons show the reality, that older persons living alone are exposed to loneliness.

Official statistics related to lonely deaths are not being compiled, but according to civic groups and local government, the government estimates deaths in 2020 of persons without any relatives or known connections (Article 12 of the Funeral Law) to have been 2,880, an increase of 57 per cent from 1,833 in 2016. Although there is no exact number, it can be seen that lonely death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and estimates based on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older persons single households suggest the number of lonely deaths will continue to rise.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working hard to solve the housing problem of low-income older persons by providing affordable rental housing. Borin House was established to provide public rental housing to low-income single older persons and prevent loneliness and lonely deaths. It embeds the concept of older persons taking care of each other. The term “borin” means helping neighbors and taking care of each other, and Borin House is structured so older persons can enjoy various programs together; a communal living room was created, based on Nono care, which means older persons both giving and receiving help.

Borin House was introduced by Geumcheon-gu in cooperation wit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Seoul Housing & Communities Corporation (SH) to improve the poor living environment of older persons and support healthy ageing. The first to sixth complex are being built in Geumcheon-gu, and the rent is 30 per cent of the market price of the region. The basic rental period is two years, and if person maintain resident status, person can live there for up to 20 years. Qualifications for occupancy are single-person households, 65 years of age or older, living in Geumcheon-gu, and receiving living and medical benefits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Geumcheon-gu provides a loan that supplies 90 per cent of the rental deposit at an annual interest rate of 2 per cent for older persons who lack the deposit. A total of 91 households are living in all the housing, including the sixth Borin House.



Borin House living room and communal kitchen



Borin House room living environment



Borin House room living environment



Borin House rooftop garden

Borin House includes a rooftop garden where older persons can grow the crops they want; the design with no threshold step at the entrance makes it easier for disabled or older persons who need to use a wheelchair to move around more comfortably. Each floor has a communal living room and a communal kitchen, so older persons can spend time in the spacious living room rather than just staying in their own single room. In this space, they can watch TV or experience various programs such as origami and balloon art.

Currently, Borin House is implementing services for its residents such as checking on their well-being, doing their laundry, and providing quarantine services for older persons living alone. In addition, various dementia prevention programs are being implemented. The manager of each house is a resident on weekdays from 9:00 to 18:00, and responds immediately to the difficulties of residents. Borin House is currently recruiting low-income older persons living alone in poor living conditions who want to move in, since there are vacancies caused by moving out or death. In the first half of 2022, eight households moved into Borin House.

Borin House not only aims to solve the housing problems of low-income older persons, but it is also a way to cope efficiently with the continuous increase in the older population by helping older persons take care of older persons. Some social actors view the increase in the older population as a social problem; but others try to use their life experiences and wisdom as social resources. Through rental housing for older persons operated on Borin House lines, the social cost of caring can be saved by older persons taking care of each other.

In addition, as the loneliness of older persons living alone is emerging as a key issue in society, rental housing can also deal with it to some extent.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for older persons continues to expand. This is an effort by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to recognize social problems related to older persons and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If these efforts continue to be expanded, they will change society's perspective on the rapidly increasing population of older persons and lay the foundation for creating a society where they can live happily.

ASEM

The Asia-Europe Meeting (ASEM) is an intergovernmental process established in 1996 to foster dialogue and cooperation between Asia and Europe.

ASEM addresses political, economic, financial, social, cultural and educational issues of common interest in a spirit of mutual respect and equal partnership. Its foremost event, the ASEM Summit, is a biennial meeting between th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Secretary-General of ASEAN. In addition, ASEM Ministers & Senior Officials also meet in their respective sectoral dialogues.

The initial ASEM Partnership in 1996 consisted of 15 EU Member States, 7 ASEAN Member States, China, Japan, Korea and the European Commission. Today, ASEM comprises 53 Partners: 30 European and 21 Asian countries, the European Union and the ASEAN Secretariat.

Through its informal process based on equal partnership and enhancing mutual understanding, ASEM facilitates and stimulates progress but does not seek to duplicate bilateral and other multilateral relationships between Asia and Europe.

Reference: ASEM InfoBoard, <https://www.aseminfoboard.org/about/overview>

ASEM Partners

Partner Organisations



ASEAN Secretariat
Joined 2008



European Union
Joined 1996

Partner Countries



Australia
Joined 2010



Austria
Joined 1996



Bangladesh
Joined 2012



Belgium
Joined 1996



Brunei Darussalam
Joined 1996



Bulgaria
Joined 2008



Cambodia
Joined 2004



China
Joined 1996



Croatia
Joined 2014



Cyprus
Joined 2004



Czech Republic
Joined 2004



Denmark
Joined 1996



Estonia
Joined 2004



Finland
Joined 1996



France
Joined 1996



Germany
Joined 1996



Greece
Joined 1996



Hungary
Joined 2004



India
Joined 2008



Indonesia
Joined 1996



Ireland
Joined 1996



Italy
Joined 1996



Japan
Joined 1996



Kazakhstan
Joined 2014



Korea
Joined 1996



Lao PDR
Joined 2004



Latvia
Joined 2004



Lithuania
Joined 2004



Luxembourg
Joined 1996



Malaysia
Joined 1996



Malta
Joined 2004



Mongolia
Joined 2008



Myanmar
Joined 2004



Netherlands
Joined 1996



New Zealand
Joined 2010



Norway
Joined 2012



Pakistan
Joined 2008



Philippines
Joined 1996



Poland
Joined 2004



Portugal
Joined 1996



Romania
Joined 2008



Russian Federation
Joined 2010



Singapore
Joined 1996



Slovakia
Joined 2004



Slovenia
Joined 2004



Spain
Joined 1996



Sweden
Joined 1996



Switzerland
Joined 2012



Thailand
Joined 1996



United Kingdom
Joined 1996



Viet Nam
Joined 1996



ASEM Global Ageing Center (AGAC)

ASEM Global Ageing Center (AGAC) is a specialized international institution based in Seoul, which operates as an international hub for coordinating a wide variety of agendas surrounding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for ASEM partners.

The center aims to address various issues confronted by ASEM partners regarding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and ultimately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through policy research, cooperation, raising awareness and education, and sharing information.

ISSUE FOCUS SPECIAL EDITION

이슈포커스는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가 연 2회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이번 2022 이슈포커스 스페셜호는 정기간행물 사이에 발간되는 2022년 특별제작물로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의 모범 사례를 선정해 소개하는 것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이슈포커스는 아셈 회원국의 주요 고령화와 노인인권 현안을 심도있게 다루고 회원국 정부, 시민단체, 학계의 대응전략과 우수사례 등을 소개합니다. 이슈포커스는 각 호마다 노인인권의 핵심 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관점과 영역을 다루어 고령화와 노인의 권리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인식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더 나아가 아셈 회원국 간 정보 공유와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asemgac.org)

AGAC ISSUE FOCUS is a periodic report, published biannually. The 2022 Issue Focus Special Edition is designed to select and introduce best practices in South Korea that help promote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Issue Focus aims to address timely ageing and human rights issues as well as introduce the relevant policies and responses from ASEM partners in order to promote information sharing and awareness raising, and ultimately enhance cooperation among the ASEM partners on the issues of ageing and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Each report covers a particular theme which reflects major and timely issues of ageing and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in Asia and Europe.

For more information, visit AGAC website. (www.asemgac.org)

AGAC

ASEM Global Ageing Center